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민관 여론 모은다

20일 국회서 전략발제 등 토론회 市 사전 조사 용역비 의결했지만 지난해 12월 예결위 문턱서 삭감 신양파크호텔 활용 800억 계획만 “현대미술관 분관 호남권만 없어”



신양파크호텔.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동구 자산동에 있는 옛 신양파크호텔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관·정치권에서도 사업 당위성을 위한 여론을 모은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안도걸 의원과 함께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필요성, 건립 방향, 전략 등에 대한 학계 논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여론 환기를 목표로 한다.

류재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장동

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유영태 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광주시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계획은 정부 예산 확보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 요청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에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이 의결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다시 내년 2025년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현재 자산동 신양파크호텔 부지 등을 활용해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위치가 ‘무등산 자락’이라 접근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지만, 무등산권역 역사·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해 일반회화부터 첨단기술 융복합 미술작품을 선보이고 관련 창작자 활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예술의 삼각축을 담당해 도시 한번 여행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 편중돼 있고 호남권에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광주관 유치 필요성이 대두된다.

류재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은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이 동시대 미술에 포커싱된 만큼, 광주관은 근대미술 형성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면서 특히 디아스포라 미술에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적임지역이라는 판단이 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지 10년이 됐다. 분관 유치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특화 미술관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광주는 아시아 문화의 창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상을 다시 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미술사에서 정부 주도의 ‘창작스튜디오’가 시작된 곳이 광주인만큼 레지던시 특화형 미술관을 건립하지는 의견도 있다.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해 예술담론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광주시립미술관의 팔각정창작스튜디오, 양산동창작스튜디오 등이 시초다.

발제에 나서는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장은 “신양파크호텔의 특성을 살려 ‘레지던시 특화형 미술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미술관과 스튜디오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광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12월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4에서 ‘아시아 박물관 산책’ 다섯 번째 강좌를 운영한다.

ACC 제공

“북아시아 초원길로 함께 산책 떠나요”

ACC ‘아시아 박물관 산책’ 9~12월 아시아문화박물관 유목민족 조명 등 8회 구성

북아시아 초원길을 따라 펼쳐지는 유목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9~12월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4에서 ‘아시아 박물관 산책’ 다섯 번째 강좌를 운영한다.

ACC와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이사장 임영진), (재)아시아문화재단(이사장 김성중), 광주일보사(대표이사 김여송)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강좌는 총 8회로 구성됐다.

초원길은 북아시아 스텝(steppe: 중위도 지방에 펼쳐져 있는 온대 초원)을 중심으로 동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전신이다. 이번 ‘아시아 박물관 산책’에서는 초원길에서 유목민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생활했는지 조명한다.

먼저 다음달 4일에는 이상목(전 울산박물관장) 강사가 암각화를 주제로 이번 박물관산책의 첫 강연을 연다.

이어 11일에는 강인욱 경희대학교 교수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서북부 일대 스텝 지역에서 생활했던 이라

계 유목민족인 ‘스키타이’를, 25일에는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몽골고원과 만리장성 지대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유목국가인 ‘흉노’를 화두로 강의한다.

이어 오는 10~11월에는 △선비와 돌궐(박양진 충남대학교 교수) △겨란과 여진(홍형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몽골(김장구 동국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한 강의가 펼쳐진다.

오는 12월에는 △바이칼 소수민족(이건욱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북아시아와 한국(오 송 전 주한몽골대사) 등 주제 강의로 이번 강좌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이나 호남문화재단연구원 누리집(www.hmy.or.kr)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북아시아의 초원길을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와 함께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인 ‘문순으로 열린 세계’를 통한 동남아시아의 바닷길까지 아시아 중심의 문화교류를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전남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본격 시동

29명 선정 및 200만원 활동비 18일 청각장애 이우현 콘서트

전남문화재단은 2024 전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이우현 예술가 등 총 29명이 선정돼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장애예술인들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공연, 전시, 출판, 발표회 및 작품개발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청각장애 예술인 이우현 지휘자의 ‘가인(佳人)의 길 콘서트’ 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순천청춘창고에서



지난달 19일 전남문화재단이 장애예술인 사업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열린다. 이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청각장애를 극복하며 순천 KBS 합창

단 지휘, 순천 시민대학 강사를 거쳐 2015년부터 거리공연과 콘서트를 통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청년예술가 강수화 시인의 기획과 연출로, △시낭송(오연이·김상복) △선주(서민주) △아코디언연주(조흥현) △바이올린공연(황희정) △발라드(이우현) △뮤지션(정용수) △민요(양승하, 이금순) △시조창(서민주·최현숙·김명남) 등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이 문화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무등산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스 ‘무진연가’

지역 협동조합 ‘어감’ 제작 감독 이정국 등 내년 개봉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가 제작된다. 제작사 협동조합 어감은 첫 장편 독립영화 ‘무진연가’를 촬영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진연가’는 어린시절 건강이 안좋아 항상 병원 신세만 지던 한 소녀가 무등산 관음암에서 요양을 하던 중 한 연극배우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무등산 자연을 비롯해 화순 전남대병원, 전일빌딩245, 송정리역 등 광주 곳곳을 풍경 삼아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한다. 무등산은 투쟁과 이념의 공간을 넘어서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함께 첫사랑의 추억이 깃든 미학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화 ‘편지’ ‘산책’ ‘블루’ ‘아들의 이름으로’ 등에서 메가폰을 잡은 이정국 감독과, 영화 ‘괴물’ ‘박하사탕’ ‘살인의 추억’ ‘부러진 화살’ 등에 참여한 김형구 촬영감독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또 광주에서 배우와 제작자로 활동 중인 임준형 희망문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 ‘무진연가’ 촬영 현장.

협동조합 어감 제공

화컴퍼니 대표가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신인 연기자는 공모를 통해 정우준(명준기역), 김재영(무진역)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조연급으로는 광주연극배우협회 이희정(간호사역)과 중견배우 정경아(연화역), (사)한국연극협회 강진지 부장 임재필 배우 등이 출연한다. 이외에도 배우 이세은, 조원희, 안순동, 도재철, 고도은, 김소연, 정매림이 출연한다.

한편 ‘무진연가’ 제작사 협동조합 어감(대표 임보현)은 감성콘텐츠를 만들고자 한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영상제작은 물론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영화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 영화사 ‘혼’과 함께 제작이 진행 중이다.

도선인 기자